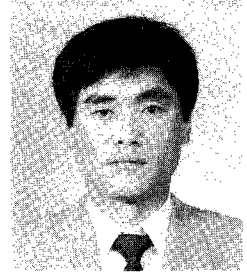




##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져가기를...



이 선 열  
금곡농장 대표

**제**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나라 살림살이가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 그런지 이번의 최고 책임자의 새로운 등장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많은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처음부터 나라 경제의 발판을 새롭게 다진다는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주기 바란다.

축산에 관련된 정책 역시 실적위주나 치적사항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축산인들이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돈을 농업관련 분야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나라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보니 무엇보다 탄탄하게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것이 없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정부의 지원은 모두가 정부의 축산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노력과 정책 실무자의 생산현장을 두루두루 파악하는 전문성이 갖추어져야겠다.

두 번째는 매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각종 자금 지원이 결국 새로운 생산자의 출현과 신

축시설에 집중 투입되어 생산과잉을 가져와, 모두의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나 농장의 운영 자금으로 지원이 되어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생산비를 줄여 외국생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겠다.

세 번째는 유통혁신으로 생산자들은 이득을 남기며 팔고 소비자는 유통거품을 제거한 값싼 생산물을 살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발과 정착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겠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유통부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유통구조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농가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간편하고 쉽게 정부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모든 바람들을 서둘러 이루려 하지 말고 취임식때 보여준 그러한 열정과 애정으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농업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고 쌓여진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다져나가기를 바라며 기대해본다. **양계**